

# “어린이 주입식 교육보다 전인교육 중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시교육청 특강

## 직원들 대상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제 프랑스 인권 사례·광주시 주요 정책 등 소개

“어린이는 보편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전인교육을 중요시해야 하며, 어린이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교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문화 예술과 창의적 교육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지나친 개인지도보다는 전성을 키우고 신체단련과 감각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서 정 부시장은 인문학 프랑스에서 시작된 인권을 소개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안전한 도시, 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 민주 인권 평화 도시 등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정 부시장은 “광주가 잘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또한 안전한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로드 모네, 반 고흐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이 젊은 나이에 자살 등의 예를

들며 “이들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우리가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전관리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시장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에서 꿈은 가치와 선택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꿈은 후세들에게 많은 책임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이미 ‘세느강에 띄운 편지’와 ‘국장님의 서랍’ 등 10권의 책을 저술했다.

이날 강의에서 정 부시장은 ‘세느강에 띄운 편지’ 소설을 소개하며 안전과 창의적 교육을 역설했다.

또한 프랑스 작가 장 자크 루소의 예일 교육론을 예로 들면서 “교육은 훈육과 코칭 그리고 힐링이 있다. 어린이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노력과 정성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특히 “어린 시절 과도한 개인지도보다는 전성에 충실하도록 교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육해야 한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시키고 감각훈련을 하며 물리와 지리를 중심으로 지적이고 실용적인 직업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시장은 “열다섯 살부터 스무 살까지 도덕성과 사회성 교육, 평등, 정의를 가르치고 허영, 질투,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부시장은 보편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전인교육을 중요시해야 하며, 어린이를 어린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부시장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에밀 졸라는 인간이 본능이나 생리적 필연성에 강력히 지배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균형잡힌 시각으로 임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공직자의 자세를 갖추고 현장에서는 안전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에 참석했던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소셜이나 영화로 안전과 인권, 인문학을 감상한 느낌이였다”며 “어린이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장성로타리클럽·시각장애인 황룡강 나들이

장성로타리클럽과 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황룡강 꽃길 동행이 최근 장성군 황룡교 다리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성군지회가 주최했으며 국제로타리3710지구 장성로타리클럽이 후원했다.



### KIA 장내 아나운서 MC이슈·양현종 나눔봉사

KIA 타이거즈 장내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MC이슈(본명 이희승)가 지난 1일 KIA 팬 40여 명과 함께 광주 남구 사직동 지역 소외계층 가정을 찾아 연탄 1,000장을 기부했다. KIA 양현종도 동참, 각 가정에 50만원 상당의 식품품을 지원했다.



### 서부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광주 서부소방서는 3일 서부소방서 소속 심폐소생술 전문의용소방대 및 생활안전강사 1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 3·1운동 항일운동 기념사업추진위 회의

광주전남 3·1운동 100주년 및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3일 광주시 동구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100주년을 맞는 3·1운동 기념식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날 중순께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관 주도 기념식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하는 100

주년 행사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운동 재연을 비롯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한편 지역 언론과 함께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고자 뜻을 모았다. /고광민 기자



## 영산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이·취임

이기준 신임회장 “모교 발전에 헌신하겠다”

영산중·고등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일 나주 엠스태이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상원 흥인학원 이사장과 박용남 상임이사, 신정훈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 강인규 나주시장, 김선용 나주시의회회장, 이민준 전남도의원, 이대성·이재남·이상만 나주시의원을 비롯해 동문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기준 신임회장은 “동문 여러분이 등대지기 된다는 마음으로 모교와 총동문회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잔잔한 파

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는 영국 속담처럼 파도가 높은 현실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지방의 중소학교도 세계적인 명문학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모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이 회장은 현재 대양 종합건설회장, 대양스퀘어개발 회장, 영산포터빌 대표 등 지역 기업을 이끌면서 법무부 교정위원, 나주시 체육회 부회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나주=이재순 기자



### 양우건설(주) 백미 기탁

양우건설(주) 고삼상 대표는 연말연시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 싶다는 750만원 상당의 백미 10kg 300포를 담양군에 기탁했다.



## 아시아문화원 북한이주민 초청 행사

연극 ‘소’ 관람·‘평화의 창’ 체험

아시아문화원은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민족동질성 회복과 지역민 복지증진을 위해 광주전남 북한이주민과 함께 하는 ‘ACC, 남-북을 잇다’ 문화행사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문화원은 지난 1일 광주전남 북한이주민지원센터 회원 90여명을 초청해 북한의 잃어버린 소 한 마리

를 놓고 남북이 벌어지는 팽팽한 긴장 관계를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우화극 ‘소’를 함께 관람했다.

이어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에서 열리는 남북 평화·통일 기원 체험프로그램 ‘평화의 창’에 참가해 각자가 바라는 소망을 퍼즐 조각에 적고, 한반도 지도에 맞춰 넣었

## 광주전남연구원 경영평가 ‘최우수’

광주·전남 상생발전 등 연구과제 수행 표창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사진)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8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광주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소명, 창의, 실용, 융합’이라는 핵심가치를 추구하면서 ‘광주전남 지역발전 아젠다 발굴 및 정책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선제적으로 지역발전과제를 발굴하고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했다.

올해는 민선7기 출범에 앞서 광주전남의 27개 시군구 발전구상을 제시하는 등 지역 아젠다를 선도했다. /황애란 기자



최근에는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시기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비교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 상생발전을 위한 시도가 합의할 수 있는 정책적 당위성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시·도정 추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모든 직원들이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광주전남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 전남 전문건설협 퇴적토 준설 지원

나주시에 3천만원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가 나주시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지원금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회는 나주 문명 안국천에 굴삭기와 덤핑 등 준설장비 등을 지원해 총 길이 1.5km·준설량 1만5,000㎥의 퇴적토 준설을 할 계획이다.

전남도회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3,000만원의 자체 예산으로 시·군협의회가 보유한 장비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오순종 회장은 “퇴적토 준설사업을 통해 재해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군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